

A photograph of a stone wall built with dark, irregular stones, partially covered in moss and surrounded by dense green foliage and trees. A vertical white bar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역사

6천 년 전, 이곳에 누가 살았다고?
마을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고려와 조선의 사이, 역적수월
산물낭우영에서 다시 시작된 마을
조선시대 조정철이 본 새미마을
조선시대 국영목장의 흔적, '폭낭도'와 '하젓성'
일제강점기의 새미
어느 마을인들 기막히지 않으랴만..., 새미마을의 4·3
4·3이 끝난 뒤, 하루에 집 한 채씩 지어
협동과 단합으로 쓴 마을발전의 역사
경제작물 복합영농으로 소득을 올리다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작지만 단단한 마을

6천 년 전, 이곳에 누가 살았다고?

새미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지금 70대의 주민들 가운데는 선사시대의 석기를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다. 1970년쯤이었는데, 당시 마을의 한 어른이 밭일을 하다가 발견한 석기를 보여주면서 "아주 옛날 철이 나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돌로 만든 연장"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돌을 깎아 만들었지만 손으로 잡기 좋게 되어 있었고, 고기를 자를 수 있을 정도의 날도 있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0년 4월의 어느 날, 새미마을에서 6천 년 전쯤의 신석기 시대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된다. 발굴조사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의 《제주 회천동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맺음말>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 회천동유적 발굴조사보고서는 2008년 제주시에서 추진을 시작한 도련-동회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되어 2010년에 조사된 신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것이다.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도 제주시 회천동 1035-2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 북위 33°30'24.6", 동경 126°36'48.7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약 75미터 가량이며 해안과의 직선거리는 약 3km 떨어져있는 중산간과 해안의 중간지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지에서 해안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 약 1.3km 떨어져 '음나무내'가 남에서 북으로 유행하며 해안에 이른다.

해안에 위치한 삼양동은 사적 제416호로 지정된 삼양동선사유적지를 비롯해 삼화지구지역, 삼양유원지내 유적과 같이 신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적이 확인되는 제주도 북동부의 최대유적이 자리한 곳이다. 따라서 회천동유적은 해안에 위치한 삼양동 내 신석기 시대 유적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금번 조사된 회천동유적은 도로개설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유구가 확인되는 부분은 동서로 주행하는 도로 양단에 발달한 계곡의 상층부에서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중앙으로 낮아지는 계곡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또한 중앙부와 서쪽으로는 암반지대가 확인되고 있으며 동쪽으로 비교적 퇴적상태가 양호한 점토층이 확인되고 있다. 유구는 토양의 퇴적상태가 양호하고 후대의 삭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수혈유구 9기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규모는 장축이 100~200cm, 단축은 70~180cm로 소형이며 깊이는 대부분 50cm 이상으로 비교적



새미마을 선사시대 유적 조사대상지 원경(상). 이곳에서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수혈유구 9기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고, 토기조각 등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아래 사진은 유구밀집 지역.
<사진출처:《제주회천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깊은 편이다. 수혈유구 중 6,7,9호의 경우 유구 내부에는 현무암 할석과 천석이 다량으로 확인되고 있어 매립 당시 일시적인 인위적 폐기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자기류, 토기류, 석기류 등이 확인된다. 자기류의 경우 지표 및 퇴적층에서 확인될 뿐 이와 관련된 건물지나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토기류의 경우 대부분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며 압인수법의 수직단사선문을 보이는 외면의 문양형태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영선동식토기 계통임을 알 수 있다. 석기류는 반파된 굴지구 1점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유구와 유물로 보아 회천동유적은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또한 제주도 북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동시대 유적들과 관련이 있으며 하천을 이용한 내륙으로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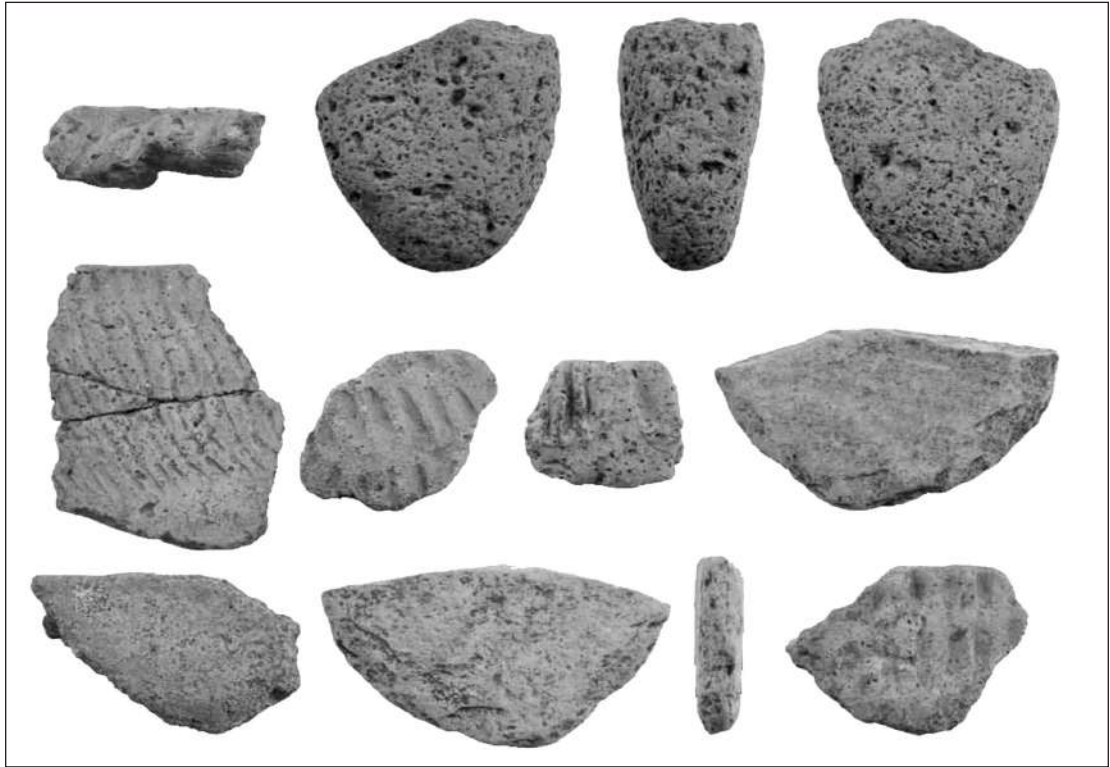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혈유구 9기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수혈유구(竪穴遺構)는 땅 표면에서 아래로 둥그렇게 파놓은 구덩이로, 고대인들이 주거했던 집터다. 주혈(柱穴)은 집터의 바닥에 기둥을 세우기 해 파 놓은 구멍을 일컫는다.

새미마을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양도 적은 데다 모두 조각들이었다. 토기류의 경우 ‘대부분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며 압인수법의 수직단사선문을 보이는 외면의 문양형태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영선동식 토기 계통’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압인문토기(押印文土器)는 손가락이나 동물뼈 또는 나뭇가지 따위로 눌러서 무늬를 찍은 토기다. 한반도의 남해안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종류인데, 주로 신석기시대 전기와 중기에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신석기시대 전기는 BC4500~3500년, 다시 말해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에서 4500년 전 사이의 시기를 일컫는다. 동해안의 오산리 유적이거나 부산의 영선동 유적에서 출토된 압인문토기가 신석기 전기 단계의 유물이라고 한다. 새미마을의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가 바로 ‘영선동식 토기’ 계통이기 때문에 신석기 전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라는 이야기다.

석기류는 반쯤 부서진 ‘굴지구 1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굴지구(掘地具)는 땅을 파는 도구다.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농경 도구로써의 굴지구는 크게 팽이와 보습으로 나뉜다. 팽이는 땅을 일구거나 파서 낱알을 심는 데 사용한 도구다. 보습은 땅을 갈아서 흙덩이를 일으키거나 뒤엎는데 사용한 것으로 밭갈이에 효과적인 도구다. 20cm 미



새미마을 선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사진출처:《제주회천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만의 크기는 돌삼이나 돌가래로 구분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는 원시농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굴지구를 이용해 식물의 뿌리를 채취하거나 간단하게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새미마을의 땅속에 어떤 유적이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0년에 조사한 유적만 놓고 본다면 이곳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수도 많지 않았고 그리 오래 머물며 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었던 걸까?

보고서 내용 가운데 ‘해안에 위치한 삼양동 내 신석기 시대 유적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거나, ‘수혈유구의 규모는 장축이 100~200cm, 단축은 70~180cm로 소형’이라거나 ‘인위적 폐기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상상력을 자극한다.

새미마을에 선사의 흔적을 남긴 이들은 신석기 시대 한반도 남해안에서 제주섬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의 삼양동 해안에 살다가, 어느 날 몇몇이 사냥 등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산 쪽으로 오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해서 지금의 새미마을 지경까지 오게 됐고, 암반이 없는 곳을 골라 서로 수m 간격을 두고 움집을 지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신석기인들의 움집들을 보면, 대체로 0.5~1m 깊이로 땅을 파내 지름 6m 정도의 둥근꼴, 또는 한 변의 길이가 5m 정도의 네모꼴 터를 다지고, 지붕은 나무와 억새풀 따위를 이용해 고깔 모양으로 덮어썩워 만들었다고 한다. 넓이를 계산해보면 18~25㎡(5.5~7.5평)가 나온다. 이 정도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어른 둘에 아이 둘이나 셋 정도쯤 된다. 따라서 신석기 사회는 부부와 자녀 둘이나 셋 정도의 보통 4~5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단위로 하는 핵가족 사회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움집은 한 유적지에 몇 개씩 모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으나마 무리를 지어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새미마을에서 발굴된 수혈유구의 규모는 1평 내외인 것으로 보아 한두 명이 살 수 있는 작은 움집이었던 모양이다. 이들은 왜 이렇게 작은 집을 지었던 것일까? 가족이 다함께 온 것이 아니라서? 애당초 오래 머물 작정이 아니어서? 사냥을 하기 위해 몇몇이 뭉쳐 다니며 임시로 거주할 집이었기 때문에? 궁금증이 꼬리를 물지만 그 사정을 알 수는 없다.

어쨌거나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작은 움집을 짓고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집터를 일부러 폐기해버리고 떠난 듯 보인다고 한다.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2010년 잠깐 모습을 드러내 궁금한 이야기만 던져주고 다시 땅속에 묻혔다. 발굴 조사가 끝난 뒤 그 자리 위로 개설된 도련~동회천 연결도로는 포장이 마무리되어 2011년 개통됐다.

마을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얼마간 살다 떠난 뒤로 또 누가 새미마을 지경에 어떤 삶의 흔적을 얼마나 더 남겼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최근까지도 제주도 곳곳에서 오랜 유적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새미마을에서 발견된 유물과 전해오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곳에 처음 마을이 들어선 시기는 고려시대 후기에서 조선시대 초기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새미물 주변에는 ‘절터왓’ 또는 ‘절왓’이라거나 ‘절동산’이라 부르는 옛 지명이 남아있다. 현재는 과수원 등 밭이 조성돼 있는 이 일대에서 지금도 자기조각과 기와조각들을 찾아볼 수 있다.

2004년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제주불교유적조사보고서, 제주의 사찰지》에 의하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아주 소량이지만 고려청자 조각도 있고, 분청사기, 백자, 도기, 기와조각 등 조선시대 유물이 많았다. 분청사기는 15~16세기에, 백자는 16~17세기 제작된 것들이고 기와도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이다. 이들 유물로 미루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 사이에 새미물을 중심으로 마을과 절이 들어섰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절터왓 지경에서 출토된 유물조각들.

<사진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인터넷>

고려와 조선의 사이, 역적수월

새미마을의 설촌과 관련해 마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현반수’와 ‘홍좌수’라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 고려시대 말 이들이 새미물 주변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반수(班首)’는 반열의 맨 앞에 서는 사람으로 보통 관직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좌수(座首)’는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鄉廳)의 가장 높은 직임(職任)을 일컫는 것이다. 더불어 홍좌수가 실재인물이라면 현반수보다 나중에 마을로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도 싶다.

현반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진다. 그의 이름은 ‘현황두’이고, 그의 사위라는 황씨와 최씨 이야기도 등장한다. 새미물 뒤쪽에 있는 숲 이름에 ‘역적’이라는 낱말이 붙어 ‘역적수월’이 된 것도 이들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묶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말 현황두라는 사람을 비롯해 몇몇 사람들이 새미물 주변에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그가 ‘반수’라고 전해지는 걸 보면 세도가였던 모양이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창건되자 고려충신이었던 현황두는 불사이군(不事二君), 곧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다’는 정신으로 자신이 사는 곳을 본거지 삼아 조선에 반역할 계획을 세운다.

현반수에게는 황씨와 최씨 두 사위가 있었다. 그의 계획을 모르는 채 조선의 벼슬을 받은 사위들은 장인에게 인사할 하기 위해 꿩과리를 치면서 새미마을로 들어온다. 현반수는 사위들에게 ‘우리는 고려사람’임을 설득시켜 반역에 가담케 한다.

그들은 숲을 중심으로 삼고 그 둘레에 돌담으로 내성과 외성을 쌓는다. 역적수월이 이들의 아지트였던 셈이다. 마을주민들은 조선 초기의 자기조각들이 출토됐던 과수원에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두께가 1.5m쯤 되는 내외성담이 남아있었다고 전한다.

현반수 일행이 피한 반역 행동은 관가에 바치는 진상품 등 공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었다. 역적수월은 본거지이고, 봉개와 신촌은 주둔지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현반수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사병(私兵)이 조직돼 있었으며 이들이 관할했던 범위 또한 넓었던 모양이다.

사위들이 동산에 올라가 망을 보다가 공물을 나르는 관군들이 보이면 사병을 이끌고 가



역적수월의 소탕사건 뒤, 그들이 주둔하던 터에 못을 파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중에 하나인 봉개연못이 있었다는 자리에는 현재 제주시생활체육공원 시설이 들어서 있다.

서 약탈하곤 했다. 큰사위 황씨가 망보던 동산을 ‘황계동산’, 작은사위 최씨가 망보던 동산은 ‘최선동산’이라고 불렀다는데, 새미마을 안에는 그런 이름을 지닌 동산이 없다. 그런데 새미마을의 옆 마을인 서회천에 ‘황계동산’과 ‘조선동산’이라는 옛 지명이 남아있다. 서회천 마을에서의 ‘황계동산’은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소유였다는 데서 연유한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동산’은 보초를 세워 감시했다는 데서 연유한다는데, “역적수월에 숨어있는 역적들이 토벌대가 오는지 감시하기 위해 보초를 세웠던 동산”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쨌든 현반수 일행의 약탈수법은 악랄했고 특히 향교 유생들을 괴롭혔다고도 한다. 조선 관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역적질을 일삼았던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관에서 군사를 동원해 현반수 일행을 소탕해버린다. 그리고 그들이 주둔하던 터에 못을 파버렸다. 이는 옛날부터 역적이 살던 터는 파헤쳐서 못을 만들어 버리는 습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현반수 일가와 그 후손들이 어찌 되었는지 전해지는 이야기는 없다.

신촌연못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다. 봉개동 동남쪽 봉개연못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제주시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 있다.

산물낭우영에서 다시 시작된 마을

역적수월 사건이 일어난 뒤, 숲 근처에 살았던 마을사람들 일부가 ‘산물낭우영’ 쪽으로 옮겨 살기 시작했고, 얼마쯤 뒤 시간 차를 두고 김해김씨, 평강채씨, 평안강씨, 진주강씨 등이 들어와 ‘산물낭우영’을 중심으로 살면서 본격적인 마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600년대경에 들어왔다는 김해김씨 일가와 1700년경에 들어왔다는 평강채씨 일가와 평안강씨 일가 후손들은 아직도 새미마을에 살고 있고, 1800년대경에 들어왔다는 진주강씨 일가는 4대까지 살다가 조천으로 이주해갔다고 한다. 경주김씨, 연산김씨, 천안전씨, 양천허씨, 수원백씨 등도 조선시대에 새미마을로 들어와 살았다. 더불어 이들 성씨들은 새미마을의 중요 성씨로서, 서로 친척 관계를 성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문헌기록 가운데 새미마을과 관련된 기록들을 추려보면, 1785년(정조 9년)에는 ‘집 36호에 인구 178명’이고, 105년 뒤인 1890년(고종 27년)에는 ‘인구 227명’이며, 1904년(광무 8년)에는 ‘집 94호에 인구 312명’이었다.



‘산물낭우영’이라는 옛 지명이 남아있는 지경.

조선시대 조정철이 본 새미마을

정헌 조정철은 조선후기의 문신이다. 제주도에 두 번 다녀갔는데, 한 번은 유배인으로 또 한 번은 목사로 부임해서였다.

조정철이 제주에 유배된 것은 1777년(정조 1년) 임금 시해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제주사람들에게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만난 제주여인 홍윤애와의 사랑 이야기로 더 알려졌다.

1782년 홍윤애는 조정철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문을 받다 죽는다. 이후 조정철은 제주를 떠나 다른 유배지를 옮겨 다니다가 60세가 된 1810년에야 유배가 풀려 관직에 등용되고 그 다음 해 제주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제주섬에 배를 대자마자 목사영접을 뿌리치고 홍윤애의 무덤으로 달려가 밤새 울었다고 한다.

조정철이 남긴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이라는 저서가 있다. 1824년(순조 24)에 간행한 문집이지만 ‘영해처감록’이라는 제목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제주도에 유배 생활하던 당시에 기록했던 글들을 모아 묶은 책이다. 635수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홍윤애를 기리는 것은 물론 유배 당시의 울분한 심정과 제주도 특유의 풍속과 경물, 기후, 인정 등을 읊고 있다. 그 가운데 새미마을 앞길에서 본 풍경을 기록한 것이 있어 관심을 끈다.

고죽황모일로사(苦竹黃茅一路賒) 참대와 띠풀 한 길로 멀리 뺄고
 의희성월해천사(依希星月海天斜) 희미하게 별과 달 바닷가 하늘로 지네.
 휴장리리호인기(携裝里里呼人起) 장구(裝具)를 끌고 ‘리리’ 사람 불러 깨워
 토모피의결설화(兔帽皮衣鵝舌譁) 토끼털 모자에 가죽옷 결설로 지껄이네.

조정철이 유배 기간 동안 기록했던 글이니, 1777년에서 1782년 사이의 어느 날 새미마을 앞길을 지나가다가 본 풍경인 셈이다. 그렇다면 당시 새미마을 앞길은 어느 길을 일컫는 것일까?

조선시대 제주도의 도로는 위치에 따라 크게 ‘상대로, 대로, 하대로’로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도로. 새미마을에서는 ‘선반질’이라 부른다.

‘상대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조선시대 목마장 경계부를 통과해 대정현~제주목, 정의현~제주목을 연결하는 도로였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하대로’는 해안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였고, 상대로와 하대로 사이에는 중산간마을들을 연결하는 도로인 ‘대로’가 있었다. 이밖에도 각 읍치에 연결되는 소규모의 중로(中路)와 소로(小路)들이 있었다.

새미마을사람들이 ‘선반질’이라 부르는 도로가 조선시대 때부터 나있었던 ‘대로’였다. 조정철이 쓴 시는 바로 이 선반질 앞을 지나며 본 풍경인 셈이다. 그의 눈에 들어왔을 당시 새미마을의 풍경이 한 편의 짧은 동영상처럼 연상된다. 멀리 바다가 내다보이고 벌판에는 무성한 대나무와 누런 띠풀이 온통 덮여있는데, 그 사이에 난 길 위로 조정철이 지나간다. 그리고 그 길 어딘가에서 만난 털모자에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조정철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지나갔던 것이다.

조정철이 새미마을에서 보았던 사람의 복장은 당시 테우리의 차림인 듯하다. 테우리들

이 소나 말을 모는 소리는 유배 왔던 이들이 낸 문집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곤 하는데, 조정철은 ‘리리(里里)’라고 표현했다. 그가 ‘결설(鵲舌)’이라고 쓸 만큼 조정철에게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제주사투리가 꽤나 시끄럽게 들렸던 모양이다.

소나 말에 농사일이며 운송 등을 의지했었던 시절, 테우리뿐만 아니라 소나 말을 끌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큰소리를 내며 다녔다고 새미마을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것은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었다.

소나 말에 짐을 실으면 넓이가 족히 2m는 된다. 길은 그 짐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기 때문에 양쪽에서 마주치면 서로 오도가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소나 말을 몰고 갈 때는 무조건 노래 부르듯 소리를 했다고 한다. 소리와 소리가 만나면 “넓은 목에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길 중간 중간에는 ‘쉬는광’이라 부르던 넓은 곳이 더러 있었는데, 그곳에서 쉬고 있으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먼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는 우선권이 있었다. 길 위에서 소나 말을 몰던 소리는 좁은 길을 이용하면서 서로 부딪치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종의 교통신호였던 셈이다. 조정철 또한 당시 새미마을 사람들이 소리로 알리며 다녔던 교통신호를 들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조선시대 중산간마을을 잇는 도로였던 ‘대로’, 곧 새미마을에서 ‘선반질’이라 부르는 길은 지금의 중산간도로 전신이다. 선반질을 몰고 들어가기도 하고 빗기기도 하면서 2010년에 확장, 개설된 것이다.



조선시대 국영목장의 흔적, ‘폭낭도’와 ‘하жат성’

새미마을의 남쪽 경계는 목장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 서면 목장 너머 새미오름, 바농오름, 지그리오름과 작은지그리오름, 민오름, 절물오름 등이 일렬로 늘어서서 눈을 맞춰준다.

목장지대로 들어가는 도로 변에는 ‘폭낭도’라는 옛 지명이 남아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오래된 큰 팽나무가 있었던 곳이다. ‘폭낭’은 팽나무를, ‘도’는 어떤 장소의 입구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1770년대에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에도 ‘팽목양(彭木梁)’으로 표기되어 있다.

폭낭도는 조선시대 국영목장으로 들고나는 길목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를 빙 둘러 국영목장이 설치된 것은 1429년(세종 11년)의 일이다. 그 무렵 제주도 전체 목장지대를 열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10소장(所場)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는데, 폭낭도는 3소장의 출입구였다.

새미마을의 목장지대에는 ‘하жат성’도 제법 길게 남아있다. 제주사람들이 ‘жат’ 또는 ‘жат담’

새미마을 남쪽 목장지대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3소장 경계 ‘하жат성’의 일부.



새미마을 남쪽 목장지대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3소장 경계 ‘하жат성’의 일부.

이라고 부르는 ‘жат성’은 조선시대 제주 중산간 지역에 설치됐던 돌담이다. 우리나라 국영목장의 실체를 입증하는 역사유물이자, 제주도의 전통목축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꼽힌다.

жат성은 그 위치에 따라 상жат성, 중жат성, 하жат성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하жат성이 가장 먼저 쌓아졌는데, 그 시기는 국영목장이 설치되던 해인 14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의 제주도 목장에는 경계가 없었다. 더불어 농경지는 목장의 말들 때문에 이만저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었다. 급기야 해안가 목장 주변의 민가에서 “말들이 밭의 농작물을 뜯어먹는 통에 못살겠다”는 민원이 폭주하기에 이른다. 이에 1425년(세종 7년) 제주출신으로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고득중이라는 인물이 임금에게 “목장을 한라산 중턱으로 옮기고 경계에 돌담을 쌓을 것”을 건의하게 된다. 고득중의 건의가 수락되어 1429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산간 지대에 국영목장에 해당하는 국마장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때 농경지대와 목장지대의 경계로 쌓았던 돌담이 바로 ‘하жат성’이었다. 결국 하жат성은 목장의 말들이 농경지에 들어가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발 150~250m 일대에 축조된 돌담이다. 그 다음 쌓아진 것은 해발 450~600m 일대의 상жат성이다. 이는 18세기 후반부터 축조됐는데, 한라산 깊이 들어간 말이 열어 죽거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 해발 350~400m 일대에 자리한 중жат성은 상жат성과 하жат성 사이의 공간을 나누는 돌담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쌓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미마을에는 жат성 중에서도 그 역사가 가장 오랜 하жат성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다. 새미마을의 하жат성은 3km 정도인데, 대체로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새미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지금의 동회천동과 서회천동이 합쳐져 ‘회천리’가 된다. 이 회천리의 호수가 161호이며 인구는 844명이라는 1930년의 기록과, 새미마을은 94호에 인구 312명이라는 1904년의 기록으로 미루어 일제강점기의 새미마을에는 대략 100여 호에 400여 명의 인구가 있었던 듯하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많은 제주도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제주도민의 이출은 1922년 12월부터 실시된 자유도항제로 인해 활발해졌는데, 1930년대 중반에는 당시 제주도내 거주인구의 4분의 1인 5만여 명이 고향을 떠났다. 이 시기 제주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1940년 이후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또 많은 제주도민들이 또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는 강제 연행이었다. 태평양전쟁 중에 징병과 징용으로 강제 연행된 제주도민 또한 5만여 명이나 된다.

일제강점기에 새미마을에서 일본으로 건너 간 사람은 20여 명이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고향에 있던 사람들도 많은 고초를 겪었다.

당시 제주도민 거의가 그랬던 것처럼 새미마을사람들도 일제의 군 시설 공사에 강제로 동원돼 일을 해야 했다. 순번제로 돌아가며 10~20일씩 노역을 했는데, 대정 알뜨르와 제주시 진드르 비행장 활주로며 명도암오름 등 몇몇 오름의 진지동굴 공사 현장에서 노예생활과 다름없는 일을 하다 왔다.

특히 1940년 이후에 일제는 공출이란 명목으로 낫그릇 등 쇠붙이는 물론 곡물 등 식량을 가택수색까지 하면서 거두어갔다. 당시 새미마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최소한의 식량만큼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돌담 옆의 땅을 파서 보리나 조를 숨겨두고 먹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왜정 때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대청소를 하게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준다. 1년에 한 번씩, 여름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오기 전에 ‘청결’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전체에 대청소를 실시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때 마을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 먼지를 털고 닦고, 집안에 있는 거미줄을 걷어낸 다음 소독약을 뿌렸다고 한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파놓은 명도암오름의 진지동굴. 당시 제주도민 거의가 그랬던 것처럼 새미마을주민들도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해야 했다. <사진출처/한라일보>

산물낭우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새미마을은 풍수지리상 훌륭한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점차 남쪽으로 옮겨져 갔다. 4·3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산물낭우영 주변과 지금의 마을중심지에 100여 세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마을인들 기막히지 않으랴만..., 새미마을의 4·3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10만여 명의 제주도민 가운데 6만여 명이 광복과 더불어 귀향한다. 새미마을에도 10여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모두 함께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희망도 잠깐이었다.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으로 온 마을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이다.

마을사람들로서는 이념이 뭔지, 사상이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을의 첫 희생자가 발생한다. 솔챙이왓 쪽에서 군인들이 도망가는 젊은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버린 것이다. 그 뒤 말을 보러 나갔다가도 군인에게 죽고, 산사람과 야합했다 의심 받아 경찰에게 죽는 등 흉흉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마을사람들은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 음력 11월 초 군경토벌대의 수색으로 석왓굴 두 곳에 숨어있던 마을사람 20여 명(15~30세, 남15명, 여5명)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나머지는 함덕 모래사장에 끌려가 사살된다.

그해 11월부터 내려진 소개령으로 새미마을사람들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신촌, 조천, 삼양 등 해안마을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산 쪽 마을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일곱 살이었다는 한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소개될 때, 동생 하나는 내가 업고, 하나는 견게 하고, 어머니는 좁쌀 담은 항을 지고... 가다가 길에서 만난 마을할머니는 ‘난 명도암으로 피난 간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안 쪽에 있는 마을로 가야 사는지, 산 쪽에 있는 마을로 가야 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마을사람들이 소개된 뒤,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은 불태워져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만다.

1949년 봄,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선무공작이 펼쳐진다. 산 쪽으로 올라가 숨어살던 사람들이 이때 많이 내려왔다. 하산한 사람들은 군용트럭에 태워져 임시 수용소로 옮겨졌다. 그러는 와중에 하산한 사람들을 태우고 가던 한 트럭이 지금의 제주교육대학 지경의 동산



새미마을 4·3희생자 위령비. 4·3사건으로 새미마을에서는 80여 명이 희생됐다.

에 들어섰을 때 한 사람이 도망쳐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일로 군경은 그 트럭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를 몰살시켜버렸다. 그 안에는 새미마을 사람도 몇 명 있었다.

4·3사건의 회오리 속에서 새미마을사람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아 다른 마을로 소개돼 갔어도 늘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중산간마을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조사를 받고 감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새미마을사람들은 남의 마을에 흩어져 사는 5년여 동안 불안하고 힘겨운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원혼들이시여, 이제 그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새미물과 석불단 진입로 사이에는 4·3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새미마을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세워져있다. 비석에 새겨진 희생자 이름과 건립문 내용이 보는 이의



2007년 12월 24일의 제막식 장면(왼쪽). 희생자 명단과 건립문이 새겨진 비(오른쪽). 희생자 명단비는 희생자 이름을 추가해 조만간 새로 만들 예정에 있다

마음을 아리게 한다. 위령비 건립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3 희생자 위령비 건립문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은 제주 전 지역을 피로 물들였으니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으로 산간 부락은 전소되고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하여 죄 없는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우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의 부모였고 형제였던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마을 안팎에서 피살되었고, 육지부 형무소까지 끌려가 수감되었다.

6.25가 일어나고, 행방불명이 된 채로 무정한 시간이 흘러, 생일날을 기일로 삼아야하는 기막힌 사연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지 어언 60년.

뒤늦게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작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에 이르렀지만 가족을 잃고 낫 시간 채 울부짖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찌 죽은 이가 살아올 수 있겠으며 뼈 속까지 사무



. 매해 4월 2일에 치르는 위령제 장면.

친 상처가 아물 수 있겠는가.

4·3의 광풍이 지나가고 흩어졌던 남은 이들이 하나 둘씩 고향에 찾아들어 초막을 짓고 다시 마을을 이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가버린 이들의 그리운 모습이며 정겨운 목소리는 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무정한지라 이제는 점점 그 옛날의 비극이 잊혀 가는데 가신 분들의 넋은 아직도 이 마을 곳곳에 머물러 있을 것임에,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죄 없이 희생된 그 분들을 잊지 않고자 온 마을의 정성을 모아 이곳에 위령비를 세우니 원혼들이 시여, 이제 그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고이 잠드시옵소서.

서기 2007년 12월
동회천(새미) 마을회

새미마을 4·3 희생자 위령비는 2007년에 건립되어 그해 12월 24일 제막식을 가졌다. 마을 부지 40평에 마을 자체 자금 300만 원과 제주도 보조금 6,000만 원을 들여 조성했다. 2008년에 마을회에서 4·3유족회로 이관되었고, 매해 4월 2일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 주민의 80~90%가 유족이니, 마을 전체가 행사를 치르는 셈이다.

4·3이 끝난 뒤, 하루에 집 한 채씩 지어

새미마을사람들이 한 많은 소개생활 끝에 다시 마을 찾은 것은 1954년이다. 4·3 이전에 살았던 100여 세대 가운데 50여 세대가 돌아왔다.

5년 만에 돌아온 마을은 황량했다. 새왓(띠밭)만 무성한데 잣더미만 남은 집터에는 잡풀들이 자리해 있고, 토벌대가 지른 화마에도 용케 살아남은 나무 몇 그루가 드문드문 서서 바람을 견디고 있었다.

돌아온 주민들은 모두 힘을 합쳐 성담을 쌓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지금의 마을중심지를 빙 두르는 높이 2.5m, 폭 1m의 성담에는 동서남북과 중앙에 하나씩 모두 5개의 초소를 만들고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지켰다.

당시 순찰 방법이 흥미롭다. 마을 책임자가 경패를 세 개 만들어서 초저녁에 세 군데의 어느 집에다 각각 숨겨놓는다. 순찰 당번은 그날 순찰 중에 경패 셋을 모두 찾아서 다음 날 아침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야 임무가 완료된다. 하나라도 빠트리면 그날 또 순찰을 돌아야 했다. 결국 집집마다 일일이 다 돌아다보아야 경패를 찾을 수 있으니 허투루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새미마을 사람들은 성담을 쌓고 자치순찰을 하는 한편, 날마다 집을 지었다.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각자 짓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모아 어느 집 한 채를 지어주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모두의 집을 지은 것이다.

당시 마을사람들은 잣더미 속에 다시 주춧돌을 세워 집을 지으면서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피곤한 줄도 해지는 줄도 몰랐다. 날마다 온몸이 흠투성이가 돼도 즐겁기만 했다. 마을주민들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초가집을 지었는데, 남녀노소 전부 모아들어 일했어요. 여자들은 물 길어 오고 남자들은 흙을 개고…. 식사도 구분해서 했어요. 힘이 많이 드는 일을 하는 젊은이들은 조금이나마 쌀 섞은 밥을 주고 나머지는 보리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에 집 한 채를 다 지었어요.”



마을 재건 때 지은 집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4·3 때 마을이 불타버리고, 주민들은 다른 마을로 소개되어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주민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은 1954년, 모두 힘을 합쳐 엔간한 집은 하루에 한 채씩 지어가며 마을을 복구해냈다.

모두가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해서 엔간한 집은 하루에 다 지어버렸다는 얘기다. 날이 어두워지면 오늘 지은 집 부엌에 불을 피우고 모여앉아 그날 하루 고생한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은 누구네 집 지을 차례로구나, 내일 할 일을 의논도 하면서 다시 힘을 내곤 했다. 새마을은 그렇게 신나고 따뜻하게 마을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협동과 단합으로 쓴 마을발전의 역사

1954년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한 새미마을은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마을 공공의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갯더미 속에 주춧돌만 남은 터를 추슬러 마을회관을 다시 세우고 마을안길과 농로 등을 차근차근 정비해갔다.

마을주민들은 특히 농로 확장을 위해 해당 토지를 아낌없이 희사했다. 덕분에 새미마을의 농로는 다른 마을에 비해 파격적이라 할 만큼 넓었고, 지금도 농사짓는데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을길을 넓히는 데도 주민들의 희사가 적지 않았다.

또한 더욱 효율적인 협동을 위해 청년회, 부녀회, 4-H 등의 단체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마을발전의 발판을 닦았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4-H는 결성 당시 문명퇴치를 위해 야학을 운영했는가하면, 연극을



1960년대의 '새미4-H구락부' 기념사진. “다시 찾은 강토”라는 글귀가 인상적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전개된 4-H운동은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으로 농촌재건운동과 연계해 추진되었다.





1962년 새미마을 출신 재일교포 김평진 씨의 고향방문 환영 기념사진. 당시 마을주민들의 모습이 정겹다.

공연하기도 했다. 시나리오에서부터 연출, 연기까지 회원들이 모두 담당한 연극은 마을회관에서 몇 차례 공연됐는데, 온 마을사람은 물론 이웃마을사람들까지 놀러와 감상했다.

청년회는 땀감용 장작을 해다 팔아 지금을 조성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등 마을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부녀회는 대소사에 필요한 식기를 비롯해 가마솥이며 밥상 등을 구비해 관리했으며, 마을행사가 있을 때마다 회원 모두가 총동원해 일손을 보탤다.

1960년대 들어 새미마을은 이 마을 출신 재일동포 김평진 씨 등 애향회원들의 도움으로 마을공동시설이 마련되는 등 눈에 띄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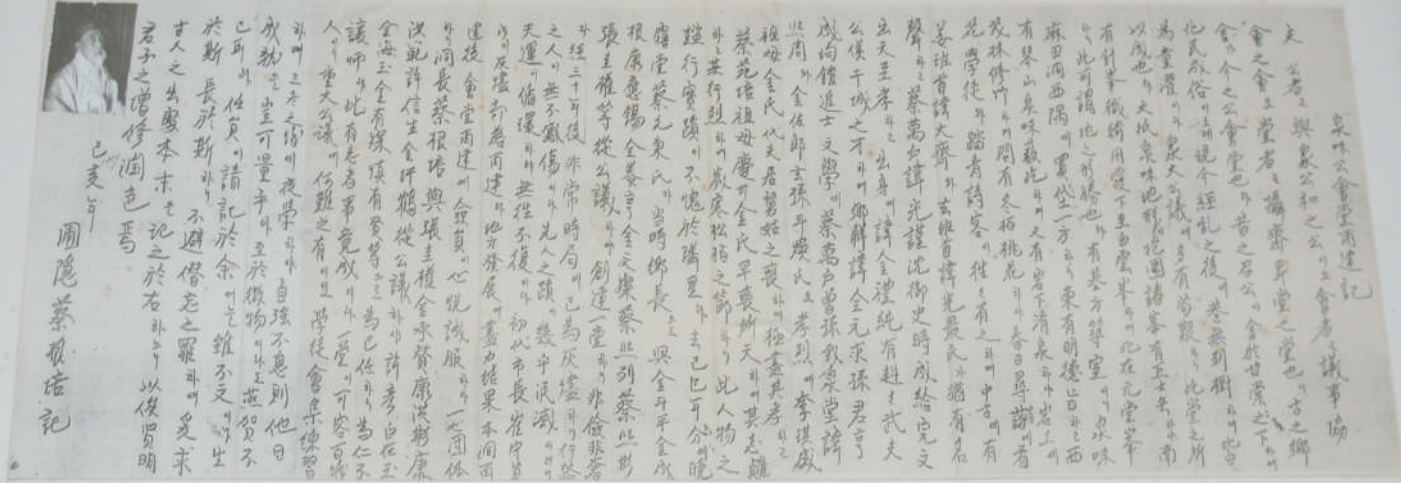
마을의 구심점, 마을회관

조선시대부터 마을의 구심점으로 자리해온 새미마을의 마을회관은 깊은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공회당으로 많이 이용됐었고, 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4·3사건 때 소개됐던 사람들이 1954년 마을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을회관 역시 불에 타 사라지고 주춧돌만 남아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건축자재를 구해오고 일손을 보태 함께 마을회관을 지었다. 당시에는 지금의 마을회관 자리에 연자매가 있었고, 그 왼쪽에 마을회관이 있었다.

1960년대 초, 김평진 씨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은 초가지붕을 양철지붕으로 바꾸는 등 새롭게 단장했다. 그리고 연자매가 있던 곳을 개조해 한 쪽에는 상여를 보관하는 창고를, 한 쪽에는 가마솥 목욕탕을 지었다.

특히 공중목욕탕 이야기가 흥미를 끈다. 외부는 돌담으로 벽을 두르고 초가지붕을 얹었다. 내부에는 돌로 큰 부뚜막을 만들고 어른 서너 명은 죽히 들어앉을만한 가마솥을 얹었다. 목욕을 하고 싶으면 조를 짠다. 그리고 함께 물을 길어다 가마솥 안에 붓고, 땀감을 구해다 불을 때어 목욕을 했다. 목욕물은 커녕 먹을 물도 귀했던 중산간 지역에서, 여름도 아닌 겨울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었으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최고의 시설이 아닐 수 없다.



마을회관에 걸려있는 <천미(동회천) 공회당 재건기>, 1959년에 작성된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 농사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비료가 적지 않게 필요했는데, 그 비료를 마을까지 실어오는 일이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다. 도련동에서 40kg짜리 비료부대 10개를 마차에 실어 날랐는데, 당시는 비포장 도로여서 힘겹기도 했지만 시간도 오전 내내 소비되었다. 그러던 중 농협에서 마을의 전 가구가 공제에 가입하면 비료창고를 지어주겠다고 했다.

1974년 상여 창고와 가마솥 공중목욕탕이 헐리고, 그 자리에 50평 규모의 제주시농협 비료창고가 지어진다. 마을의 전 가구가 공제에 가입하고 상여 창고와 가마솥 목욕탕이 있던 마을 부지를 기부 체납해 비료창고가 마련된 것이다. 덕분에 손쉽게 비료를 이용하며 경제작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1984년에는 양철지붕의 마을회관 건물을 헐고 현대식 새마을회관을 건립했다. 새마을회관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인 '동회천복지회관' 전경. 왼쪽 건물은 양철지붕의 마을회관 건물을 헐고 1984년에 지은 새마을회관. <위의 사진은 1974년에 지어 20여 년 동안 이용했었던 비료창고 건물 모습. 아래 사진은 1994년에 지은 지금의 마을회관인 '동회천복지회관' 준공식 장면.

에는 회의 장소는 물론 52석의 독서실을 마련하고 2천 여 권의 각종 서적을 배치해놓아 마을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지금의 마을회관 건물이 지어진 것은 1994년의 일이다. 비료창고를 지을 때 부지를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농협으로부터 그 부지를 다시 구입해 50평 규모로 건립했다.



전기가설을 위해 전주를 세우는 모습. 새미마을의 전기가설공사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진출처 : 《사진으로 엮은 20세기 제주시》/제주시>

문명생활이 시작되다

새미마을에는 다른 중산간마을들에 비해 상수도과 전기, 전화 등이 일찍 개설되었다.

새미마을에 공동수도가 설치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중산간 지역에서 최초였다. 말도로목, 흑굿디, 진골목, 서카름 등 마을 안 동서남북에 하나씩 모두 네 군데에 공동수도가 있었다. 집집마다 수도가 가설된 것은 1971~73년 쯤이니 제법 오랫동안 공동수도를 이용한 셈이다.

마을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 무렵이었다. 버스는 항상 만원이었다. 당시 하루에 3번밖에 다니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황금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었다. 그리고 새미마을이 종점이었다. 막차가 동문로터리에서 밤 11시 출발해 삼양, 봉개, 서회천을 거쳐 동회천에서 정박했다가 새벽에 첫차로 운행했던 것이다.

1970년 3월에는 전기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8월 12일 점화식을 가짐으로써 호롱불 생활이 막을 내린다. 전기 시설 역시 여느 중산간 마을에 비해 빠른 편이다.



◁구 회천분교 운동장 한 켠에 세워진 새미마을 전기가설 관련 기념비
▽추억의 시내버스. 제주도에 시내버스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2년이었다. 새미마을은 1960년대 말 무렵부터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사진출처 :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제주특별자치도>



새미마을이 수도와 전기의 혜택을 일찍 맞출 수 있었던 것 역시 김평진 씨를 비롯한 애향 회원들의 도움으로 마을자체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화가 처음 가설된 것은 1974년으로, 당시 흑굿디에 자리했던 새마을구관장의 공중전화였다. 구관장에 설치된 확성기로 “○○○씨, 전화 왔습니다.”하고 방송되면, 만사를 제쳐두고 전화 받으러 달려가곤 했다. 얼마 후 서회천에도 공중전화가 생겼는데, 바로 동회천의 전화선을 연결시켜간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의 제주도내 마을 안길 정비 사업 모습. 새미마을에서도 주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마을 안길을 정비했다.<사진출처:《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1970년대는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시기다. 새미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976년 9월부터 마을안길 확장 및 포장, 농로 확장 등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새미마을의 새마을사업 과정 역시 마을사람 모두의 땀과 노력이 깃들여 있다. 당시 도로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시멘트만 지원되고 자갈이며 모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자갈은 마을 안에서 어찌어찌 모을 수 있었지만 모래는 안덕의 사계마을까지 가서 실어 와야 했다. 모래는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준 4톤 트럭으로 운반했다. 당시 새미마을에 주어진 트럭 임대 기간은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일주일이었는데, 신정 연휴가 끼어있어 나흘만 작업할 수 있었다. 날은 춥고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데, 하루 두 차례씩 사계리에 가서 모래를 실어 마을로 날랐다. 그리고 밭에서 자갈을 주워 모아다가 삼으로 모래와 시멘트를 버무리가며 길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년이었던 마을주민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삼으로만 작업을 하니 너무 지쳐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경운기 발동기를 끌어들다가 버무리니까 일이 엄청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능률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단합이 참 잘 됐어요. ‘어디 가자, 어떻게 하자’하면 100%가 다 동참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노래에 나오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라는 가사처럼 마을길이 넓어진 것도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지붕이 없어진 것도 새마을운동 때의 일이었다.





김평진 선생이 건립해 1963년 개관한 제주의 첫 관광호텔인 제주관광호텔 개장식 모습. <사진 출처: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제주시>

동천 김평진 선생은 누구인가?

김평진 선생은 1926년 4월 2일 새미마을에서 태어났다. 15세 때인 1940년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반으로 자수성가한 대사업가다. 사회활동도 왕성해 1961년 재일제주개발협회를 창설해 회장을 맡고, 재일한국인거류민단 중앙본부 부단장을 지냈으며, 한·일 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1982년) 등도 역임했다.

고향마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1960~1970년대 수도와 전기, 마을회관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위해 굵직굵직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새미마을 발전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어주었다.

선생은 특히 제주의 발전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1962년 새미마을 주민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윗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김평진 씨.

1963년, 제주 관광에 대한 비전과 기반이 전무하던 시절, 도내 최초로 제주 관광호텔 (현재의 하니 관광호텔)을 건립했다. 이어 서귀포관광호텔을 건립하고 허니문 하우스의 문을 여는 등 제주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교육부문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 1966년,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해 제주도 여성교육에 열의를 쏟아 부었다. 현재 제주여자학원은 장남인 김화남 이사장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1973년에는 제주신문사(현 제주일보) 회장에 취임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배당금도 없는 투자를 계속하며 제주언론의 발전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농업 분야에도 깊은 족적을 남겼다. 제주개발협회장 때부터 우수한 일본 감귤묘목 수십만 그루를 제주에 보급하고, 농민들을 현지 농원에 초청해 해당 기술을 익히도록 배



새미마을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동천 김평진 선생의 자취가 새겨져있는 비석들. 마을회관 마당과 회천분교 운동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려했다.

체육 분야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인물이다. 제주도 종합경기장과 애향운동장 건설 당시 막대한 금액을 출원했고 덕분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향 제주와 국가에 기여하는 남다른 행로 과정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1963년에 대한민국 문화훈장, 1981년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1987년에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받았다. 1998년에는 제주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자랑스러운 제주인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동천 김평진 선생은 일본 동경에서 2007년 3월 29일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경제작물 복합영농으로 소득을 올리다

1960년대 이전의 농사는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자급자족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돈’이라는 것을 만져보려면 무엇인가를 내다팔아야 했는데, 새미마을 사람들은 ‘뽕감’을 해다 팔았다고 회상한다.

“4·3사건 끝나고 마을로 다시 올라와 살면서 너나할 것 없이 고생이 많았어요. 지그리오름까지 여기서 13km 정도나 되는데, 길도 나지 않을 때라. 거기를 짚신 신고 가서 말라죽은 나뭇가지인 ‘삭다리’를 해서 오는 겁니다. 어른들만 가기도 하고, 조금 큰 아이는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하나라도 더 해오려고 모으다보면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워요. 그걸 등짐으로 지고 내려오다 보면 절망 절망한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마중하러 올라와요. 그것들이 짐을 지면 얼마나 질 거라. 그래도 하도 버치니까, 마중 나온 아이들에게 요만큼씩이라도 덜어서 나눠주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거든. 그나마 자



1950년대 동문로터리에 섰던 나무시장 모습. 당시 새미마을 사람들도 삭다리를 해다 이곳에 팔러 가곤 했다. <사진출처: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제주시>

식이 있는 집 애기고, 마중 안 나오는 데가 있어. 자식 없는 집은 짐만큼이나 마음도 무거웠을 거라. 삭다리를 해오면 그걸 시에 팔러 가야되거든. 우리 마을에는 빌려 쓸 수 있는 마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신고 동문로터리에 가서 산지천 옆에 부려놓는 거라. 거기서 뿔감을 사갈 사람들을 기다리다 보면 산지천 물속에 잘라서 버린 생선 대가리가 눈에 띄어요. 야, 저거를 누가 보지 않으면 주어다가 집에 가서 삶아먹을 생각이 문득문득 날 정도로 배고프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초가를 짓고 살던 시절에는 ‘새왓’이 많이 있었다. ‘새’는 초가지붕을 이는 풀인 ‘띠’를, ‘새왓’은 띠가 자라는 밭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초가지붕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바뀌어 새가 필요 없게 되자 새미마을에서는 새왓을 갈아 본격적으로 유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유채 재배 이후 돈이 되어서 ‘곤쌀’을 사다 먹을 수 있었다.

유채와 맞물려 수박을 재배했는데, 여름에 수박 수확을 마친 밭에다 유채를 갈아서 더욱



잘되었다. 월동 무와 배추도 재배했다. 소위 경제작물농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수박은 도내에서 회천수박을 제일로 꼽을 만큼 인기가 엄청 좋아 농가소득을 상당히 높여주었다. 새미마을에서 수박 농사가 잘 된 것은 우선 토양이 알맞았기 때문이다. 거기다 마을사람들의 열의와 부지런함이 보태져 새미마을 수박은 유난히 큰 데다 맛도 좋았다. 새미마을에 수박재배 바람을 일으켰다는 주민은 그에 얽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내가 처음 수박을 해본 것은 1964년인데,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 이전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수박을 했기 때문에 한 번 해본 건데, 장마에 꼭 병이 걸려버리는 거라. 농고를 나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별명이 우장춘이라고 할 정도로 농사에 상당히 익숙한 친구였어요. 찾아갔더니 밀감도 요만씩, 요만씩 생산해놓고 있고, 토마토도 하고 있더라고. 그 친구가 ‘다이젠’이라는 농약을 써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수박이 병에 걸리지 않는 거라. 그 시절에는 농약을 칠 때 ‘스페어깡’이라고 예전에 군용지프 뒤 달려있던 기

새미마을의 한 유채밭. 해마다 봄이면 유채꽃 물결이 마을을 온통 노랗게 물들이던 시절이 있었다. 새미마을은 유채와 더불어 수박을 재배하면서 농가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1967년 여름 제주도 서문시장 남쪽에 위치했던 오일장 풍경으로 수박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이즈음부터 새미마을에서 생산된 수박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사진출처:《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1》/제주특별자치도>

름통, 그것으로 분무기를 만들어 썼어요. 그렇게 해서 수박이 말끔하게 열리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라.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너나없이 수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또 거름을 많이 줬더니 수박이 크고 많이 열려요. 그것도 이제 전부 따라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을이 수박 주산지가 됐어요. 그리고 수박을 마차에 싣고 시내에 나가서 직접 팔았어요. 시외에도 팔러 다녔는데, 그때는 앞에는 바퀴 하나, 뒤에는 바퀴 두 개 있는 삼륜화물차, 그것을 빌려요. 그 차에는 마차로 대여섯 분량의 수박을 실을 수가 있거든. 그 차에 수박을 싣고 여기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돌면서 마을, 마을에서 팔면서 서귀포까지 가는 거라. 서귀포까지 갔는데도 수박이 남으면 그날은 장사재수가 없는 거. 너나없이 다 서귀포 쪽으로 모이니까, 오히려 시내 시세보다 쌀 수가 있다고. 수박이 좋으니까 대개는 서귀포 가기 전에 다 팔렸어요. 동쪽으로 돌면 남원에서 서쪽으로 돌면 모슬포에서 끝나. 그러면 수박장사 잘 된 거지. 그러다보니 남들 한 마차에 그때 돈으로 만원 받는 거 우리는 만 5천 원, 만 7천 원, 거의 배를 받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올렸어요.”

마을 주변에는 신촌이며 삼양 사람들의 새왓도 많이 있었다. 그 새왓들을 빌려 개간 해서 수박을 재배하기도 했는데, 한 해 수박농사를 하고 나면 그 밭 하나를 살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을 마을주민은 이렇게 전한다.

“회천수박이 인기가 좋다보니까 재배를 많이 해서 여기가 완전히 수박단지가 된 거예요. 수박은 그렇게 경제작물로 자리 잡았고, 월동배추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잘 돼서 상당히 소득이 높았어요. 어떤 해는 수박 재배하고, 월동배추 재배하고…. 또 일찍 감귤 시작한 사람은 과수원까지 하면서 소득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게 됐어요. 1975년에서 1980년 사이에 전국 농사 소득 통계가 나왔었는데 그때 우리 마을 농가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상위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박, 배추, 감귤, 축산 등



새미마을의 한 감귤과수원. 현재 새미마을 주민들은 거의 감귤농사를 짓고 있다.

복합영농이 우리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새미마을을 힘겨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수박농사는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지만 차츰 거둬 수박에 없었다. 새미마을이 수박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자 주변마을에서도 수박농사를 많이 하기 시작해 물량 면에서 도저히 경쟁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새미마을의 경작지는 점차 감귤과수원으로 바뀌어갔다.

새미마을의 감귤재배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니 감귤농사 역시 다른 마을에 비해 이른 편이었다. 1972년 동회천 감귤작목반이 결성되고, 그를 통해 대량생산이 이루어져갔다.

새미마을의 감귤농사는 1980년 무렵 최고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1985년에는 KBS의 앞서가는 농어촌마을 프로그램에 복합영농으로 소득을 올리는 시범사례로 소개되어 ‘살기 좋은 마을’로 전국방송을 타기도 했다. 2005년 제주도에서 감귤을 처음으로 캐나다에 수출할 때, 새미마을 감귤도 함께 보내었다.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구역을 지정했다. 더불어 14개 권역에 걸친 논과 밭 등의 농경지와 임야, 대지 그리고 일부 자연 취락 등을 포함해 전국 토 면적의 5.5%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의 그린벨트는 1973년 3월 5일에 지정되었다. 면적은 제주시 79.62㎢, 당시의 북제주군 2.98㎢로 총 82.6㎢이었는데, 그 안에 41개 마을이 있었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마을들 가운데 새미마을도 포함됐었지만 한동안은 별 느낌 없이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무원들이 사진기와 팻말을 들고 마을 안으로 들어온다. 주민들은 새미마을에서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팻말을 쥐어주면서 주택 앞에 서라고 하더니 사진을 찍어 갔어요. 그때 찍은 사진들 시청 어딘가에 있을 거라.”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팻말이었던 거라. 그때는 그린벨트가 좋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몰랐주게.”

“영어로 되난 좋은 건 줄 알았겠지.” (이 부분에서 다 같이 웃었다.)

“한두 집만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 찍어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 찍힌 시설 이상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작물 농사로 소득이 높아져 살만해지자 주택들을 현대식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새미마을은 그린벨트로 인한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때문에 시달렸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과수원을 조성하면서 돌담을 쌓으려고 밭에서 돌을 캐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넘어

가다가 밭으로 들어온 거라. ‘이 돌을 왜 캐느냐.’ 하면서 내 밭에 돌도 캐지 못하게 하더라고.”

“새로 집을 지을 때도 기존 주택보다 줄일 수는 있어도 더 넓혀서 지을 수 없었어.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의 가치를 좀 이어가지고 조금 넓혀서 창고하려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때려 부숴버리더라고.”

“그 당시는 동사무소에 그린벨트 담당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불법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기엔 진짜로 트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어떤 이는 예전의 순사처럼 구는 바람에 되게 손가락질 받았지.”

“좀 현대식으로 새집을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넓혀짓고 싶었는데 기존 평수에서 조금 안으로 들여와야 그 규정에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한 몇 cm 정도 나간 것도 잘라서 새로 했던 것이 기억나요.”

“아들이 분가하면 집을 지어야 하는데, 분가용 주택도 지을 수 없었어요. 부모네 집에 얹혀사는 것도 한두 해이지요. 가뜩이나 좁은데, 아이들은 많아가고 마을에서 나가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더 클 수가 없었어요.”

그린벨트로 인한 문제가 결국에는 마을인구의 유출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마을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농사 확장이 안 되고 집을 지을 땅이 확보가 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96년도에 이르러서는 회천분교가 폐교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새미마을의 사례처럼 그린벨트는 해당 지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건물 신축은 물론이고 땅값을 동결 또는 하락시키는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그린벨트는 도시의 자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었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함으로써 많은 불편이 따르고 도시를 관리하는데 불합리한 문제점도 발생해 1998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2001년 8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었다.

작지만 단단한 마을

새미마을이 공공시설을 발전시키고 공동의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협력’이다. 그동안 마을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모아 해결해왔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은 ‘튼튼한 마을 기금’이다. 그 속에는 마을사람들의 협력과 애향심 그리고 어떤 마을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을기금의 근원, 역적수월의 대나무

새미마을기금은 역적수월의 대나무에서 시작되었다. 대나무는 양은이며 플라스틱 재료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생활용품 재료로 긴요하게 쓰였던 재료다. 새미마을에는 대나무가 무성한 역적수월이 있어 구덕이며 차룽 등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4·3사건이 끝나고 마을을 한창 재건하던 시기에 다른 마을사람들이 역적수월의 대나무를 몰래 베어가곤 했다. 이에 새미마을은 역적수월 주변에 막을 지어 마을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땅을 보며 대나무밭을 지켰다. 그리고 대나무를 팔아 마을공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새미마을과 가까운 지금의 도련2동에는 ‘맨돈지마을’ 또는 ‘맨촌’이라 부르는 자연마을이 있었다. 집집마다 대나무 수공업이 전문화 된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에서 가을이면 역적수월의 대나무를 밭떼기로 사가곤 했다.

역적수월의 대나무밭은 대나무로 만든 생활용품이 사양길로 접어들 무렵까지 마을의 공동자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결국 역적수월의 대나무가 새미마을자금의 근원이 된 셈이다. 그 후 애향회원들의 도움이 보태졌고, 1990년 이후에는 저온저장고 등의 수익이 마을자금으로 쌓이게 된다.



마을기금의 큰원을 이루어준 새마을의 왕대나무.

저온저장고와 쓰레기매립장

새미마을의 저온저장고는 회천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로 제시해 시설된 마을공동자산이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마을사람 모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당시 상황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우리 마을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 1989년 때쯤인가… 배추 재배를 많이 할 때인데, 어느 날 배추 상인이 우리 마을에 왔다가 회천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 깜짝 놀라가지고 봉개동사무소로 달려갔어요. 내가 마을 일 맡았을 때니까, 당시 동장한테 ‘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느냐’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거라. 그래서 동장을 만나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거주.”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엄청 반대했어요. 동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투쟁을 했죠. 시청에 가서 막 데모하다가 몇 사람 구속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뭔가 해주겠다, 인센티브를 요구하라는 거라.”

“배추농사를 많이 할 때니까 저온저장고를 하면 괜찮겠다, 다른 마을에서는 저온저장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마을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환경하고 저온저장고하고 바꿀 수 있느냐 하지말자 그래서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다고 쓰레기매립장이 안 들어설 것도 아니니 다시 마을 회의를 거쳐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할 거라니까, 저온저장고에 대한 소문이 짝 났거든.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저마다 자기 마을로 저온저장고 사업을 당겨가 버려서 열 몇 군데가 지원돼 버렸어. 그러니 우리 마을에 100평밖에 안 되겠다, 더 안 주겠다 이거라. 안 된다, 50평이라도 더 얹어가지고 150평을 주라, 그래서 우리 마을이 지금의 저온저장고를 지니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을 저온저장고를 임대한 사람이 참 성실해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해가지고 임대료를 꼬박꼬박 주니까 금방 자금형성이 되는 거라.”

1992년부터 가동된 회천쓰레기매립장은 2002년까지 10년 동안만 운영하기로 했었



새미마을의 저온저장고는 회천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로 제시해 시설된 마을공동자산이다.

다. 그런데 10년이 더 연장되고 만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당시에는 ‘2002년까지 10년만 매립한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1998년에 제주시장이 바뀌고, 쓰레기매립한지 딱 10년 되니까, 카~ 머리가 좋기가이, 당시 시장이 봉개 본 동네에 가가지고 ‘무시거 필요하우파?’ 물어보고, 또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여기 가장 필요한 것이 뭐파?’ 딱 행이네 ‘게문 한 10년만 더 하계양!’ 이렇게 맨투맨 작전으로 동의를 얻은 거라.”

“그때 우리는 도로가 참 협소해가지고, 중산간 도로밖에 큰 도로가 없으니까, 도련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해달라니까, 시장이 ‘아, 경협주게. 이거 기반시설이랑 다 해가지고 하자.’ 약속을 했거든.”



봉개동에 위치한 회천쓰레기매립장. 1992년부터 10년 동안만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연장운영이 거듭되는 바람에 힘겨운 논쟁을 거쳐 2016년까지만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공사 마치고 나니 기반시설이랑마랑 도로 폭도 좁고…. 이건 아니다 싶어도 약속을 그냥 입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입으로만 했어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틀림없겠지 믿어 보자, 그렇게 또 10년이 연장된 거라.”

“그런데 매립장 형태를 보니까 어수선히가지고 엉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음식물도 짝에 담아가지고 그냥 야적해버리고 하니까 주변에 악취며 파리로 정신없어. 진짜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개동 전체자치위원회에다가 ‘매립장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상정시켰어요.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매립장을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통에서 3명씩을 뽑아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게 2007년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매립장에 대한 감시활동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하

ihalla.com 한라일보

[사설]쓰레기매립장 문제 방치할 것인가



2010. 06. 19. 00:00:00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난 쓰레기매립장의 실태와 문제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992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제주도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의 매립가능한 용량은 188만톤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말까지 160만 1000톤이 매립돼 여유분량은 27만9000톤에 불과하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연간 4만2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16년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야말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발등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사안인 지는 회천쓰레기 매립장조성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바 있다. 주민들의 집단으로 당시 제주시청은 거의 일년내내 농성장으로 변했다. 예산 역시 20만3300㎡에 이르는 매립장 부지 확보와 매립장 조성, 해당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지원 등에 수백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과정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현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회천매립장을 확대조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후보지조성에 비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매립장 이설과 대체(代替) 후보지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자칫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매립장을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은 알고 있다. 이들은 "대체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조기에 추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당장 내년부터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상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도정이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10년 6월 19일자 <한라일보>에서

도록 제주시에 촉구했다. 약속대로라면 매립장을 2011년까지만 사용해야 하는데, 연장설이 자꾸 불거졌기 때문이다.

힘겨운 논쟁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2011년 3월, 2016년까지 연장기로 최종 결정이 난다. 그리고 2016년까지 봉개동(동회천·서회천·봉개·용강·명도암) 발전기금으로 110억 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행정

4년 넘게 갈등해온 회천매립장 사용연장 합의

제주시-봉개주민대책위 쓰레기매립장 2016년까지 사용키로
매년 10억원 상당의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약속

데스크승인 2011.03.22 11:43:04

김봉현 기자 | mallju30@naver.com

그동안 장기간 사용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시 봉개동 소재 회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시와 지역주민대책위가 줄다리기를 끝내고 오는 2016년까지 매립장을 연장 운영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위원장 채종국)가 매립장 포화시기로 예상되는 2016년까지 사용을 보장하고, 시는 봉개동 지역에 매년 10억원 이상의 현실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장기간 사용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시 봉개동 소재 회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시와 지역주민대책위가 줄다리기를 끝내고 오는 2016년까지 매립장을 연장 운영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위원장 채종국)가 매립장 포화시기로 예상되는 2016년까지 사용을 보장하고, 시는 봉개동 지역에 매년 10억원 이상의 현실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키로 합의했다.

제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봉개동 회천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와 매립장 운영기간 등에 대해 22일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매립을 시작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지역주민들의 혐오감 유발과 악취발생 등 직간접 피해로 지난 2007년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사용기간 제한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방안을 놓고 그동안 제주시와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그간 시는 주민대책위와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를 벌여왔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 요구사항에 난색을 표해왔고, 그렇다고 대체 매립시설 확보도 되지 않아 4년 넘게 갈등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병립 시장이 주민대책위 대표들과 적극 대화에 나서면서 그동안 막혔던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협약이 급물살을 타면서 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이번 체결된 협약의 요지와 관련, △현 매립장 포화 예상시기인 2016년까지로 연장하되 신규 매립장 후보지 확보 추진 △다만 2016년까지 신규매립지 확보가 안 될 경우 후보지 확보 시까지 계속 사용 △매립장 시설 주민감시원 3명 배치 고용 △현실적인 주민숙원사업 적극 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 중 '현실적인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10억원 이상 규모의 예산을 도의회 승인을 거쳐 시가 봉개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환경개선과 소득향상, 복지증진 등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규매립장 후보지 확보를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 2월까지 실시해 신규후보지 확보방안과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시는 포화 예정시기인 2016년까지 새로운 매립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주민대책위와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사전 협약체결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한편 회천매립장은 제주시 회천동 294-22번지 일원 20만3000㎡ 부지에 1990년 11월24일 매립시설이 승인된 후 1992년 8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올해말까지 사용키로 돼 있었지만 하루 122톤 반입물량을 기준으로 오는 2016년까지는 추가 매립이 가능한 상태다. <제주의소리>

2011년 3월 22일자 <제주의 소리>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던 목장 안에 들어선 회천관광농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끼리쇼장을 유치하는 등 한동안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현재 숙박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회천목장과 관광농원

집집마다 소나 말이 한두 마리씩 있던 시절, 새미마을사람들은 마을 남쪽에 자리한 40여만 평의 광활한 목장지대에 우마를 방목했었다. 그리고 그 목장지대가 새미마을의 땅이라는 것을 의심해보지 않았다. 마을 지역이었고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으니 당연히 마을 땅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마을주

민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1957년의 일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목장 땅 여러 군데에 시멘트랑 자갈로 기초공사를 시작해놨어요. 알아보니까 시하고 이시들목장이 매매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회천목장 하면 전체를 우리 마을 것으로만 알았는데, 시유지라는 거야. 옛 어른들이 세금 관계로 소유권 등기를 안 했다는 말을 들었어.”

“그때 동회천, 서회천 마을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이시들이 나가게 되었지.”

그 뒤 동·서회천 주민들이 회천목장에서 축산업을 하며 목장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다 1997년에 시에서 한화에 매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서회천 마을에서 관리하고 보존한 거에 대해 보상을 하라’ 해가지고, 결국 지원받았어요. 시에서 20억, 한화에서 5억 원.”

“마을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시유지를 사고, 지원금으로 건물 등을 지어 조성한 것이 ‘회천관광농원’입니다. 동·서회천 마을주민 90%이상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요.”

회천관광농원은 1999년에 개장됐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끼리 쇼장이 들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회천관광농원을 소개했던 언론 기사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 회천관광농원 개장

제주시 회천관광농원이 14일 문을 연다. 9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72명이 공동 참여한 회천관광농원은 최근 회천동 산1 일대 2만9천여㎡ 초원지대에 각종 숙박 및 부대시설과 조경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14일 개장키로 했다. 시내에서 동부산업도로를 따라 20분 거리 외곽지역에 있는 이 관광농원은 시 보조 25억 원 등 모두 37억여 원이 투입돼 여관(25객실), 방갈로(8채), 연회장, 농특산물 판매장, 민속 찻집과 1천300㎡ 규모의 코끼리 쇼장이 갖춰졌다. (1999. 7. 9. 연합뉴스 중)

제주에 국내 첫 ‘코끼리랜드’ 개장

코끼리의 진기명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코끼리랜드’가 국내 처음으로 제주에서 문을 열었다. (썬백



회천목장 풍경. 현재 새미마을에서 축산업을 겸하고 있는 농가는 네 가구다. 700두 정도의 소와 60두 정도의 말이 회천목장과 인근마을의 목장지대 등 30만여 평의 초원에서 자라고 있다.

상코끼리랜드는 제주시 회천동 동부산업도로변 회천관광농원에 550명을 수용하는 1000평 규모의 야외 코끼리쇼장을 갖추고 2일 개장했다. 이 공연장에서 라오스산 코끼리 일가족 9마리가 ‘사람 위 걸기’를 비롯해 축구, 농구 등 10여 종의 묘기를 선사한다. (2001. 6. 3. 동아일보 중)

한동안 활발하게 운영되던 관광농원은 2011년 코끼리랜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현재는 숙박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회천목장에서 한화리조트에 30만 평이 들어갔고, 관광농원에 들어간 것은 1만 평인데 그중 2천 평 정도는 도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6만 평 정도가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새미마을에서 축산업을 겸하고 있는 농가는 4가구다. 그 가운데 세 가구가 소를 기르고, 한 농가에서 소와 말을 기르고 있다. 새미마을에서 기르고 있는 소는 모두 700두, 말은 60두 정도인데, 회천목장과 인근마을의 목장지대 등 30만 평에서 자라고 있다.